

시선

사설

다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빠지는 이 없이 화합하길

올해도 가을축제가 시작된다. 1956년 10월, 우리학 교 개교 7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제1회 대학제’는 대 학 축제의 모태가 됐고 ‘대동제’로 이름을 바꿔 지금 것 이어오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 학축제이건만 이번 축제는 어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양 총학생회가 최초로 합동 축제를 기획한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상대 캠퍼스의 수업을 교차수강하거 나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하는 식의 개인적 차 원의 교류는 있었을지언정, ‘경희’라는 이름 아래 하 나 된 구성원들이 한 자리 모여 즐길 수 있는 장은 많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련된 이번 축제, MasterPeace, (경)희대 의 걸작이라는 이름까지도 그 센스가 좋다. 60여 년도 전, 첫 대학제를 앞두고 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재 학생 각 개인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야만 그 참된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참여 하고 다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온전한 학생문화로서 의 축제, 실로 ‘대동제’라는 명칭에 어울린다. 그리고 2018년 가을에 와서야 양 캠퍼스 학생은 (경)희대의 걸작을 통해 실로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길 수 있 게 됐다.

그런 즐거운 축제를 앞두고 노파심에 몇 마디 말을 보태보고자 한다. 바로 진정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축제를 위함이다. 축제 때면 으레 주점에서 크고 작 은 사건사고가 일곤 한다. 시비나 말다툼부터, ‘술기 운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공부하던 학우를 ‘헌팅’, ‘번호 따기’ 혹은 ‘어떻게 한 번 만나볼’ 대상으로 인 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왓자지껄한 주점의 한 구석에서 피해자들은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켜야 했 을 것이다. 각종 사고와 범죄는 ‘책임감 있는 지성’으 로서 대학생이 지녀야 할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린다.

축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Fair’는 라틴어 ‘feriae’에 뿌리를 둔다. 이는 ‘일 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라는 데, 학내 청소년노동자들은 축제 기간이 가장 바쁘다. 청 소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많은 각종 쓰레기, 담배꽂초, 토사물까지, 즐거움이 지나간 신세벽에 캠퍼스를 정리 한다. 다음 날도 자식 같은 학생들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하는 것은 늘 이들의 몫이었다. 축제를 지 원하는 관계 부서 직원들의 노고도 마찬가지다.

다 좋다. 축제는 학내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끄럽게 즐기며 동료들과 청춘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니까. 노곤하고 피로한 청춘이 온전히 자신 들의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니까. 그러 나 기왕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시작 을 준비했다. 그렇게 마련된 걸작의 자리에 빠지는 이 가 있다면 섭섭할 것이다.

60여 년 전 주창한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우리의 축제가 간직해야 할 본연의 가치다. 대학제에서 시작된 대학가 축제가 빠다 박은 듯 라인업과 음주를 강조하는 ‘클리셰’로 점철된 지금, 양 캠퍼스 총학이 함께 준비한 이 축제 가 또 다른 축제의 의제가 되어 다음 반세기를 이어나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 축제를 즐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대학은 지금

공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학생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동연)가 학생 자치공간 확충 을 요구하며 학생문화관 회의실을 점거했다.(동연, 학문 관 503호 점거해 공간 확보 요구/이대학보, 2018.10.1.) 동연은 대학본부 학생처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회 의실을 점거하고, 학생 자치 공간이 부족함을 주장했 다. 이어 “회의실을 동아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연의 점거로 학생처 소속 학생상담센터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학생처는 학칙 56조, ‘학생운 동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조 항을 근거로 들며 “동연이 무단점거를 지속하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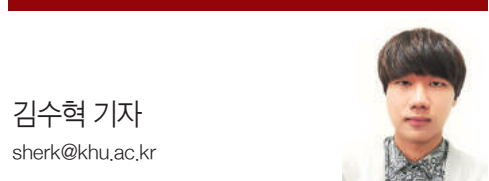
건국대 장애학생간담회가 개최됐다.(2018 2학기 장 애학생 간담회 개최/건대신문, 2018.10.1.) 학생복지처

만평



이 주의 주제 - 대학원생 조교

노동을 노동답게



김수혁 기자
sher@khu.ac.kr

대학원생 조교들은 지시를 받아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다. 업무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보조’라는 어사패만 들이대면 눈치껏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다. 노동자가 아니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 연차,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노 동자의 권리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 와 존엄입니다.” 올해 노동절(5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기념 메시지를 시작했다. 우리 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어느 한 곳 인간의 노동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헌법이 노동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한 이유다. 노동은 개인과 사회의 존속을 떠 받쳐 주는 기둥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노동이 라는 말이 불온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한국에 서, 노동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사실은 자못 감동 적이다. 그러나 대학이 굴러갈 수 있게,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 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

자 대통령의 메시지는 뒷맛이 씁쓸해졌다.

혹자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될 일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라도 하 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 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부리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 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다.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예외는 물 컵에 떨어뜨 린 잉크 방울처럼 퍼져나간다. 남의 떡은 그림 속 에 있는데 내 떡은 소반 위에 있기를 바랄 수 있 겠는가. 결국 모두가 그림 속 떡만 보고 앉아 있는 세상이라면 어쩌다 떨어진 떡고물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아사리판’이 벌어질 것 아닌가.

밤늦게까지 통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한 전직 조교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대학원을 벗어났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아 니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생하고 있 는 후배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가만히 있을 수 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를 포함해 이번 사례 당사자들 중 실명을 실 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청 때문 이었으나 나중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 했다. 이름을 밝히도록 설득해볼까 했지만 ‘난처 한 부탁’이라면 신물이 날 그들에게 할 짓이 아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말처럼 그들까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대학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몰락한 9월의 봄

세시봉

최명규 <편집장>



지난 9월 흥익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에 이어 고려대 학교 총학생회 회장이 대학 모든 구성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한 총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 성에 돌입했다. 언론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 의 의지를 ‘9월의 봄’으로 조명했다. 올 여름 우리대학 에서도 ‘9월의 봄’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이 가시화됐 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우리학교 구성원 4주체 모 두가 사상 처음 대학의 민주화라는 한 뜻에 목소리를 모았다. 구성원 4주체가 민주적 총장 선출제 도입에 앞장섰던 이유는 우리대학 민주주의 실태와 직결된 다. 학원의 민주화라는 교훈이 무색하게도 우리학교 를 대표할 총장은 법인 이사회가 내부 의결을 거쳐 단 독 선임하는 법인 재량적 구조다.

내홍을 겪으면서도 9월에 재개된 총장 선출제 논의 테이블에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인이 돌연 총장 선출제 논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법인은 앞으로 법인이 아닌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방 파기에 가깝다. 그 원인이 조인원 총장에게 있다는 법인 공영일 이사장의 발언은 황당함을 더한다. 조 총장이 지난 7월부터 이어왔던 총 장 선출제 논의를 파기에 이르게 한 시점은 지난 9월 17 일이다. 총장 임기 만료가 불과 68일 남은 시점이다. 3 선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총장 선출 제 관련 언급을 일체 하지 않던 조 총장이 돌연 논의에 뛰어들 의도에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왜 지금인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조 총장의 3선 연임이 결정 되며 밀실 선임 논란이 일어났다. 조 총장은 취임 후, 절차상 미숙한 점을 인정하며 총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이사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 다. 하지만 4년이 다 가도록 조 총장은 그 약속을 지키 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총장이 차기 총 장 선출제 문제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에 진정성 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조 총장의 방침을 따른 법인은 스스로를 부 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총장 선출의 권한이 법인에 있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은 다름 아닌 법인 자신이었다. 법인 대 신 대학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인의 말을 끝이 듣는다면, 지난 3달가량 법인은 어떤 권한으로 구성원 과 총장 선출제 논의를 했는가. 모순된 자태에 황당함 만이 남는다. 구성원 총 투표 도입을 반대하며 여름방 학 내내 연임 구성원과 공방전을 펼쳐왔던 법인이다. 그랬던 법인이 조 총장의 의결은 단 4일 만에 수용했 다. 구성원과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 지난 3달간의 총장 선출제 논의가 한 순간의 물거품으로 전락한 순간, 법 인이 총장과 구성원을 대하는 온도차는 뚜렷하다.

이 와중에 일부 교수는 차기 총장 선거 출마를 준비 하고 있다는 뜬소문마저 돌고 있다. 구성원 대표 간 협 의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니 지난 2014년 때처럼 민주적 총장 선출 이 어영부영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든다. 봄은 흔 자 오지 않는다. 민주적 절차로 포장된 시간 끌기가 아 닌, 대표들의 결단과 단합이 필요하다. 9월의 봄이 11 월 가을의 결실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 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최명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